



병원 디자인에서 치료 시작된다

글_장성호 고려대학교 의대교수 torchid@korea.ac.kr

병원은 우중충하고, 어두운 곳에 있어서 환자에게 정신적 안정, 편안함, 위로를 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가구는 모두 틀에 박힌 모양이고, 조명은 형광등과 같이 조악한 수준이다.

또한 창문을 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병원내의 소음은 수동 착암기를 쓸 때 들리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게다가 소독약 냄새가 카페테리아의 음식물 냄새와 섞여서 방문객들이 쾌적한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서 전세계에서 건축가나 설계사들이 하나 둘 환자의 회복을 돕는 측면에서 병원을 짓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 물결은 유럽과 미국에 서서히 영향을 주고 있다. 목적은 분명하다. 환자의 고통을 더는 물론 다시 찾고 싶은 병원을 짓는 것이다. 부드러운 조명으로 분위기를 우아하게 하고, 전망을 멋있게 하며, 1인실과 곡선으로 된 복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원,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환경 개선으로 환자는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다.

최근 '병원 건축'이라는 책을 저술한 건강관리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몽크 씨는 "병원의 환경은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는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두렵고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우중충한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갇히게 되면 병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병원설계를 합리화하는 건축가들의 연구결과를 예로 들면 환자들이 병실의 창을 통해서 자동차 대신 나무를 보게 되면 회복이 빨랐고, 1인실이 병원감염을 줄이고 친구나 가족의 방문을 더 많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 환경 쾌적하면 환자 더 빨리 치유돼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영리 재단인 건강 설계센터는 건축 환경 자체로 치료를 돕는 병원의 개념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그들이 추산한 비용을 보면 300병상 규모의 2억4천만 달러 정도 소요되는 병원 신축의 경우 1천200만 달러가 더 들어간다. 그러나 그 비용은 1년만 지나면 오늘날 많은 병원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들 중 병원감염 하나만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줄이는 데서 오는 이익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 설계센터의 책임자이며 실내설계회사인 카마의 회장 로잘린 카마는 "새로 지은 병원은 일류 의사들과 새로운 환자들로 차게 될 것이며, 의학적인 상식이 많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환자들은 새 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산을 잘 관찰하면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카마는 미국의 유명한 병원 중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된 건축물로 플로리다주의 아벤추라병원, 아벤추라 메디컬센터, 코네티컷의 그린위치병원, 내슈빌의 샌태니얼 메디컬센터,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헌팅턴 병원, 오마하의 아동병원 등을 꼽았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칙칙한 병원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2010년까지 100여 개의 병원을 건축할 예정이며 세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에 있는 노퍽 병원, 노리지 병원, 네델란드의 그로닝겐 대학병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오슬로의 리흐스스피탈렛 대학병원 등은 전세계 각국에서 새로 짓는 병원의 모델이 되고 있다.

4년 전 새로 지은 리흐스스피탈렛 대학병원은 140만 평방 피트의 면적에 의료장비 포함 5억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분석가들은 그 정도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았다. 건축



가 수난드 프라스드는 리스 대학병원을 돌아보고 나서 “첨단 과학이라기보다는 다만 그들이 그 병원을 지을 때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화롭게 하였다”고 평가를 했다. 리스대학병원은 노르웨이의 남부에서 시행되는 심장 수술의 절반을 담당했고, 장기이식 병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특히 신장이식 분야는 전세계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로부터 보면 그 병원은 오히려 평범하게 보인다, 건물은 금빛 벽돌로 되어 있고, 광장 모양의 안뜰 같은 곳에 열린 입구가 있고, 그 주위에 탐이 솟아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몽크는 그의 책 표지에 그 병원 사진을 실었다. 그는 “내가 감히 말하건대 현재로서 그 병원은 병원 설계측면에서 예술적인 면, 인간, 그리고 치료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한 가장 잘 지어진 병원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 병원

병원건축이 힘들고 복잡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건축가는 의술과 환자, 그의 가족 및 친척, 병원의 스태프 등 모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리스병원의 건축을 담당한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오타르와 그의 동료들은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느낌을 더 좋게 하고 직원들이 그들의 업무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을까”하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병원 건축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한다. 오타르는 리스병원을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해 지어진 인본주의 병원”이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 마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어진 585개 병상의 이 병원은 밖에서 보면 아름다운 중심도로로 시작해 한쪽 끝

에서 다른 쪽으로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지붕대신 자연 채광이 잘 되도록 되어 있다. 길의 한쪽 끝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면 채색유리 효과를 나타낸다. 길을 따라가면 군데군데 아름다운 가로등과 늘어진 식물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수대, 조각 등 예술작품이 있어서 각 임상과를 찾아가는 안내판 구실을 하는데 이는 환자가 병원 주위의 길을 빨리 익히게 하려는 배려 때문이다. 가장 큰 길에는 환자나 방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주할 수 있도록 피아노가 놓여 있다. 병원 스태프들은 먼 거리를 스쿠터를 타고 이동한다. 건축가들은 정원의 풍경이 보이는 많은 창문과 아름다운 협만과 같은 길 양측 전망, 한때 정신과 병원처럼 아름다운 옛날 건물 등을 주장하였다. 의사들까지도 그들이 수술을 하는 수술실에도 창문을 가지게 되었다. 환자들은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사이 직원들과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아름다운 정경을 보게 되었다.

소아과와 산과는 그들만의 병동과 출입구도 별도로 있다. 출입문 쪽으로 유리벽이 있고 그를 통해서 운동장, 줄줄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스키장 등이 보이게 하였다. 현관 안은 부드러운 놀이공간이 있고, 밝은 채광과 분수가 있다. 병동 안에는 학교가 있고 각각의 소아환자의 방에는 부모가 같이 쓸 수 있는 침대가 있다. 병원에서 채색 가구들은 분홍과 푸른색에서 물리치료실 같은 곳에서는 활력적인 노란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대기실은 컴퓨터, 테이블 축구장, 피아노, 그리고 텔레비전 세트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병원은 더욱더 평면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스태프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느라고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들것에 누워있는 환자는 형광등을 보는 대신에 은은한 불빛과 아름다운 천장을 보게 된다. 병원이 개원한 이래 병원의 환자수가 거의 두 배(25만 명/年)로 증가하였고, 회전율이 낮아지고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여 자원가동률이 상승하였다고 행정원장인 대니얼슨은 말했다. “환자들이 우리 병원의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주었다. 다른 어떤 병원보다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일 줄은 몰랐다”는 대니얼슨의 말은 병원디자인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㉔